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1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22일 (음력 11월 5일) 금요일

## 전남 인구문제 극복 민·관 협력체계 본격 가동

### 도, 제1회 전남 인구정책위원회 개최...분야별 57명 위원 구성

### 연 4회 정기회의 통해 심의·의결·인구정책 관련 자문 업무

전남의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21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회 전남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전남 인구정책위원회는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과 출산율 저하,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의 활력 저하와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남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 전남의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심의 및 의결과 인구정책 관련 자문 등의 업무도 함께 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지사(권한대행)를 비롯한 도청 인구 관련 부서 실국장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57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박종철(목포대 교수) 위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일자리·청년분과, 결혼·출산·양육·보육분과, 인구유입분과, 고령화·정주여건분과 등 4개 분과로 조직되고 총괄위원회는 연 2회, 분과위원회는 연 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남도는 위원회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SNS 등을 활용한 상시 업무 연락체계를 갖추고 전남 인구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현황 분석 및 협력관계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전남 인구는 189만 4000여 명으로, 2004년 200만 명 붕괴에 이어 지난 3월 190만 선이 무너지는 등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또 2045년에는 17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군 등 전남지역 16개 군이 30년 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 전망이 비관적이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인구문제는 전남의 존립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모든 역량을 인구문제 해결에 모아야 할 때"라며 "전남만의 강점을 살린 인구문제 해법을 발굴하는데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동지 팔죽에 들어갈 새알 질기상 동지를 하루 앞둔 21일 경남 거창군 가조면 소림사에서 신도들이 동지 팔죽에 넣을 새알을 빚고 있다.

## ‘광주 3대 벨리’ 기업유치 본격 가동

### 범시민 추진위 구성...미래 먹거리 산업 연관기업 유치 주력

광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에너지신산업·문화융합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3대 벨리 내 기업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광주형 일자리 3대 벨리' 기업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에는 의지 결집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대표, 언론계, 학계, 유관기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역량 결집, 유치 분위기 조성,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집행위원회와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은 "우리 지역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이 입주한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벨리

가 조성되면서 전기가 기반의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유관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겠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친환경자동차산업,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융합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통해 광주의 산업지형을 재편하고, 노·사 상생형 선도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정착에 힘써왔다"며 "3대 벨리를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기업들이 몰려드는 광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내년 초에 3대 벨리 기업유치를 주제로 광주경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 건의와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광주가 3대 벨리 기업 입주의 최적지임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성탄절 연휴로 다음호 27일자 발행합니다



### 분당 임박?

비른장담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당 내 의견이 수렴해 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통합 추진을 위한 전당원 투표 등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안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대표께서 통합과 자신의 신임을 묻는 전당원 K보팅을 하시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안철수 시장의 승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인철수 대표가 통합 회의를 깨달 때 저는 당은 장기국회에 전념하고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및 선거제도 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니 그것에 집중하는 큰 정치를 하라 고 권했고, 또 공개적으로도 밝힌 바 있다' 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스1



산타와 나누는  
달양 겨울 이야기

# 2017 담양 산타축제

## 2017 DAMYANG SANTA FESTIVAL

12.15 ~ 12.31  
담양읍 원도심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